

회상, 재구성, 치유

—『눈 사냥꾼들』 속 트라우마 서사*

장 희 동**

요약

트라우마 서사는 폴 윤 소설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 대부분 현대인들이 겪는 각종 트라우마 문제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트라우마의 회복과 치유 과정을 탐색한다. 소설 『눈 사냥꾼들』에서 폴 윤은 다각적인 모더니즘의 서사 방식을 활용하여 전쟁 포로인 요한이 겪는 트라우마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사건을 보여주었다. 소설의 묘사를 통해 트라우마의 후유증이 요한의 신체 곳곳에서 나타나지만, 이와 같은 표현은 폴 윤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후유증을 통해 요한이 과감하게 과거와 자아를 직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트라우마 이론을 활용하여 소설 속 인물이 경험하고 목격한 트라우마, 그리고 궁극적으로 트라우마의 치유와 심리적 재구성을 고찰했다. 또한, 전쟁의 위선과 참혹함, 인간성에 대한 왜곡과 파괴를 표현한 점은 폴 윤이 보여준 트라우마 서사의 중요한 가치이자, 시사점이다.

주제어: 눈 사냥꾼들, 트라우마 서사, 초국가주의, 재구성, 치유

* 이 논문은 중국 국가 유학자금 관리위원회 (China Scholarship Council)와 한국 정부 초청장학금 (Global Korea Scholarship)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CSC NO: 202208230004).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목차

1. 들어가며
2. 회상: 전쟁의 트라우마 표현
3. 재구성: 전쟁 트라우마에 관한 초국가적 창작 방식
4. 치유: 전쟁 트라우마와 화해
5. 결론

1. 들어가며

오늘날 현대 사회의 산업화와 식민 지배, 환경 오염, 해외 이주, 그리고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트라우마(trauma)를 경험하게 된다. 원래 의학 용어인 ‘트라우마’는 개인과 집단의 생존 상황에 대한 관심과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트라우마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트라우마는 의학적 문제에서 점차 사회적 문제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의 초점은 심리적 트라우마의 원인과 예방, 치료에 관한 문제에서 점차 연구 차원에서의 트라우마의 원인과 예방, 치료에 관한 문화 문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트라우마 비평은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데 보다 깊이 있는 내적 관점을 제공한다. 그래서 독자들이 텍스트의 외부에 존재하는 의미를 파악하고 작가와 인물의 심리를 추적하면서 잠재 의식 차원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9·11 사건 이후, 서양 문단에서는 한 차례 새로운 트라우마 서사가 등장함에 따라 트라우마 이론을 활용해 문학 작품을 나타내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문학과 트라우마를 결합한 사고방식이 문학 연구를 위한 중요한 방향으로 부상했다.

2000년대 이후, 재미 한인 문학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소설, 시, 연극이 제작되었고 기성세대의 작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별였다. 그리고 문단에는 새로운 신예들이 등장했고 우수한 문학 작품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재미 아시아계 문학의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에 당대 미국 문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신선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2000년대 이후의 재미 한인 문학은 강렬한 문학적 반성과 현실주의적인 관심, 그리고 예술적 혁신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나날이 글로벌화가 이루어지는 세계 속에서 많은 작가들이 글로벌화의 물결에 참여하면서 글로벌화로 인해 등장한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폴 윤(Paul Yoon)은 대표적인 재미 한인 작가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신인 소설가로 손꼽힌다. 2009년, 29세의 나이로 발표한 첫 단편 소설 『원스 더 쇼어』(*Once the Shore*)는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주목을 받는 신간을 비롯하여 〈노스엔젤레스타임스〉, 〈퍼블리셔스 위클리〉, 미국 공영 방송국 NPR에서 선정한 올해 최고의 처녀작으로 뽑혔다. 2013년 출간한 첫 장편 소설 『눈 사냥꾼들』(*Snow Hunters*)¹⁾은 미디어와 독자들로부터 빠르게 주목을 받으며 오프라(Oprah)의 8월 선정 도서, 미국 독립서적협회의 8월 도서, 〈뉴욕커〉의 가장 주목을 받는 신간, 〈뉴스 위크〉의 가장 인기 있는 도서로 뽑혔다. 또한, 『눈 사냥꾼들』은 2014년 뉴욕 공립 도서관으로부터 영 라이언즈 문학상(2014 New York Public Library Young Lions Fiction Award)을 수상했다. 폴 윤은 단순한 현실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사회 현실의 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우화적인 기법을 이용해 현실 사회 속 다양한 현상을 반영했다. 그리고 폴 윤의 소설은 형식적으로 복잡함 속에서 명확한 의미를 전달한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우화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 내용은 오늘날 사람들이 현주소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독특한 우화적 스타일로 충만하다. 이방인은 충만한 시적 언어로 고향을 등지고 브라질로 떠난 한국인 전쟁 포로의 이미지를 보여주

1) ‘눈 사냥꾼들’이라는 제목은 본 연구자가 번역한 제목으로 원제는 ‘*Snow Hunters*’이다.

었다. 그리고 그의 삶과 역경을 통해 보잘 것 없는 타향살이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굴하고 한국 전쟁이 평범한 사람에게 준 심적 트라우마와 전쟁의 잔혹함을 토로했다. 한반도의 구세주이자, 보호자인 미국의 역사를 비난하면서 이미 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²⁾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폴 윤의 텍스트에는 고독한 삶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사고를 담아냈다. 그리고 그의 소설은 깊은 사상과 독특한 서사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중에서도 『눈 사냥꾼들』은 따뜻한 우화 소설로 삶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주는 텍스트로 이야기를 구성했다. 그리고 고독한 영혼이 세상과 조화롭게 지내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한 평론은 『눈 사냥꾼들』에 대해 ‘고독한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책’, ‘간결하고 절제된 텍스트’라고 평가했다. 이와 같이, 폴 윤의 『눈 사냥꾼들』은 깊은 사상적 의미와 독특한 창작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연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남북으로 분열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한인 문학에서 한국전쟁은 점차 핵심적인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폴 윤 작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 문학과 정치의 연계를 들 수 있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선으로, 폴 윤의 소설은 전쟁에 대한 서사를 구현한다. 이는 『눈 사냥꾼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눈 사냥꾼들』은 결말부터 보여주는 도서(倒敘) 기법을 활용하여 한국 전쟁이 끝나고 북한 병사였던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연합국의 도움을 받아 브라질로 건너가 한 일본계 재단사의 밑에서 일하는 이야기를 그려냈다. 일본계 재단사는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두 사람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요한도 포르투갈 언어를 거의 몰라 현지인들과 대화가 어려웠

2) 한국 전쟁은 제2차 세계 대전, 베트남 전쟁에 비해 관심도가 적어,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전쟁’이라고도 불렸다.

다. 이와 같은 침묵 속의 나날 속에서 요한은 전쟁을 회상하기 시작한다.

전쟁과 피해자는 공동체가 잊고자 하는 것들이다. 망각의 베일은 고통이 담긴 불쾌한 모든 것들에 드리워져 있다. 우리는 얼굴을 맞댄 두 측면을 발견한다. 한편은 잊고자 소망하지만 잊지 못하는 피해자이고, 다른 편은 잊기를 원하고 또한 그러는 데 성공하는 강하고 종종 무의식적인 동기를 지닌 다른 모두이다. “그 대답은(...)늘 양편 모두에게 너무 고통스럽다. 가장 약한 편이(...)이렇게 불평등한 침묵의 대화 속에서 패배자의 자리에 남겨진다.”³⁾ 『눈 사냥꾼들』에서 폴 윌은 ‘회상’이라는 방식을 활용하여 독자들에게 전쟁의 트라우마와 고통을 받는 영혼에게 인도주의적인 관심으로 위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정신적으로 서양의 전쟁을 소재로 한 문학의 전통적인 창작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 전쟁과 이로 인한 인류의 재난에 대해서 그간 서양 문학은 잘 다루지 않았다. 서양 사람들이 한국 전쟁을 잊고자 하는 데에는 역사,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원인이 존재한다. 비록 국가의 민감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만 폴 윌은 뚜렷한 이데올로기의 입장을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능숙하게 처리했다. 한반도가 분단된 것과 같이, 브라질도, 러시아도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폴 윌은 주인공에 정치적 부담감을 주지 않고 단순히 요한(Yohan)의 순수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 전쟁과 삶,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관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요한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모습을 벗어나려고 다시금 사랑을 찾는다. 과거를 잊는 것은 더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좋은 기억을 쌓고 조용하게 이별을 고한다. 이와 같이, 『눈 사냥꾼들』의 트라우마 서사는 집단 기억에 대한 반발과 재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쟁이 한 전쟁 포로에게 준 무거운 상처와 고통을 준 것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도 볼 수 있다.

3) 주디스 허먼, 최현정 역,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열린책들, 2012, 26면.

폴 윤은 비(非)모국어의 창작 방식으로 서양의 주류 문학계에서 광범위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국내에서 폴 윤은 문학계나 학술계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대부분 초국가주의와 환대의 윤리학⁴⁾의 관점에서 『눈 사냥꾼들』을 분석했다. 이에 본 연구는 폴 윤의 서양 언어를 중심으로 요한을 통해 구현된 역사적 기억을 환기시키는 지리적 공간과 초국가적 정체성의 공간 구축, 그리고 차이가 존재하는 다문화적 공간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이민자들의 정체성의 변화와 자아를 재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현대적 경험을 고찰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중에서 요한의 전쟁 트라우마⁵⁾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전쟁에 관한 회상은 주로 트라우마의 고착화, 전쟁 기억과 소싯적 기억의 교차 및 트라우마의 감각적 재현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심리적 트라우마와 도덕적 트라우마로 접근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서사 기억과 여성의 정신적 위로 측면에서 요한의 트라우마 치유 과정을 분석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폴 윤의 대표작 『눈 사냥꾼들』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트라우마의 표현, 트라우마의 재구성, 트라우마의 치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눈 사냥꾼들』 속 전쟁의 트라우마라는 주제를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폴 윤의 트라우마 창작 특징과 트라우마 이후,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심리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독자들에게 더욱 쉽게 파악하도록 해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눈 사냥꾼들』의 공백 분야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재미 한인 문학 연구 영역을 보다 다양화하고자 한다. 또한, 폴 윤이 서양의 언어적 환경에서 한국 전쟁을 쓴 것은 한국 스토리의 서구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폴 윤은 1950년대 한반도에서 발생한 스토리를 독자들

4) 구은숙, 「한국전쟁 포로의 브라질 이주와 환대의 윤리학: 폴 윤의 『눈 사냥꾼들』, 『영어영문학』 22(1), 미래영어영문학회, 2017, 41-59면, 육성희, 「초국가주의와 한국계 미국소설, 『횡단인문학』 2,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2018, 1-20면.

5) 유인, 「민족을 초월한 트라우마 치유의 길: 소설 『스노우 헌터스』(Snow Hunters)중 한국전쟁의 트라우마 및 해소, 『통일인문학』 90,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5-42면.

에게 알려줌으로써 한국 현대 문화에 대한 서양 사회의 낯설음을 일정 부분 해소하였다. 동시에 전쟁에 대한 반성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기억에 대한 공통적인 사고로 볼 수 있다. 이에 폴 윤의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의 트라우마 서사를 연구하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

2. 회상: 전쟁의 트라우마 표현

우리는 역사로부터 시작하지만 역사를 초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 전쟁과 관련된 문학 작품이 다수 등장했지만 전반적으로 당시 인간성의 본질을 다룬 작품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리고 전쟁의 파괴성을 다루기 보다는 대부분 전투 과정을 묘사하면서 특수한 시기 문단의 강렬한 정치적 색채와 실리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미국인에게 있어서 한국 전쟁은 승리를 거두지 못한 전쟁, 그리고 대중들로부터 잊혀진 전쟁이었다. 그리고 서양 문학사에서 한국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항상 외면을 받았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거둔 쪽이나 패배한 쪽 모두 새로운 질서를 재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미래에 집중했다. 모든 국가와 사회는 미래를 향해 전진했고 트라우마를 겪은 과거는 잠시 보류하거나 심지어 그대로 잊어버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트라우마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추하고 부도덕한 과거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회상하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고 어떠한 범죄 경험이나 고난의 경험도 공론의 화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마찬가지로, 트라우마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이들이 겪은 트라우마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또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인식하게 된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이들은 처음에는 악몽과 같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자신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집단을 찾을 수 없었고 이들이 속한 사회도 이들

의 기억을 들어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 전쟁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은 실질적인 논쟁거리가 없어보이지만, 가해자의 ‘외면’과 피해자의 ‘침묵’으로 인해 문학 작품에서 이들의 트라우마는 수용되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날 독자들의 심리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전쟁의 트라우마를 구현하는 특정한 표현 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트라우마에 관한 간접적인 사건과 경험을 통해 심리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과거의 진실을 다시금 마주하고 역사의 사실을 종합하여 전쟁과 민족의 방향을 반성하는 것이 문학이 이루어야 할 사명으로 볼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음 세대로 옮겨가고 트라우마의 증인들이 점차 죽음을 맞이하면서 ‘외면’과 ‘침묵’은 점차 잊혀지고 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인종 학살을 통해 기억을 모두 지워버리려는 히틀러의 염원을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외면’을 해소하고 ‘침묵’을 깨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되었으며, 한 세대가 경험한 트라우마의 역사를 표현함으로써 죽은 자들의 기억이 널리 알려지도록 해야 하며, 모든 것이 그대로 잊혀지면서 두 번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본래 ‘트라우마’란 외적 힘이 신체에 미치는 물리적 피해를 뜻한다. 오늘날 트라우마의 의미는 자연 재난, 전쟁, 종족 대학살, 성범죄와 같은 폭력적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 반응을 가리킨다. 대규모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트라우마의 후유증은 가장 심각하다. 예일(Yale) 학과 트라우마 연구의 대표 학자인 카루스(Caruth)는 돌발적이고 재난적인 사건을 피할 수 없었던 경험이 바로 트라우마이며, 트라우마로 통제할 수 없었던 후유증은 환각과 같은 다양한 방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⁶⁾ 피해자들은 갑작스러운 트라우마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트라우마로부터 자극을 받으며 ‘회상’의 방식으로 피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6) Caruth Cathy,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Baltimore: Jone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11면.

이와 같은 과정은 통제불가하고 예측불가한 과정이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과거 트라우마의 경험에 대한 저항이자, 일시적으로 마음속 상처를 피할 수 있다고 기만한다. 하지만 과거는 언제나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을 통해 트라우마를 치유하거나 과거와 화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트라우마는 회피하거나 무시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축적이 되고 암암리에 확대되면서 특정한 순간 폭발해 더욱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무시하는 것은 문제를 뒤로 미루며 문제를 불러일으킬 뿐이며 회피하는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솔직하게 대면하는 일만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전쟁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의 포로를 간과한 채, 용감한 전사와 무고한 민간인들에게만 관심을 갖는다. 제2차 세계 대전과 한국 전쟁에서 포로에 대한 학대와 박해, 송환 지연 등과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와 같이 전쟁 포로 문제는 특수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쟁에서 트라우마를 입은 전쟁 포로도 단순히 간과할 수 없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잔혹한 육체적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기억 속에서 고통스러운 트라우마의 기억은 한번에 지워버릴 수 없었다. 이와 같은 트라우마의 기억은 남은 여생 동안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이들의 약한 신경을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다. 전쟁 포로는 운이 좋게 송환되더라도 정치적 검열과 주변인들의 왜곡된 시선을 경험해야 한다. 군인으로서 적과 싸우다 죽음을 맞이 하지 않고 포로로 전락해 살아남은 일은 벗어날 수 없는 심리적 트라우마로 남는다. 한국 전쟁은 그 어떤 도덕과 윤리적 선을 넘으며 가해자조차 말할 수 없는 행위로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사자에게 전쟁의 트라우마를 표현하는 방법은 어려운 과제로 부상했다. 폴 윌슨은 『눈 사냥꾼들』에서 장렬한 역사와 정치적 특성을 부여하면서 한국 전쟁으로 인한 전쟁 포로들의 피해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회상’의 방식으로 스토리를 전개했다. 회상은 본질적으로 트라우마의 경험을 다

시금 기호화하고 추가적인 상상을 더한다. 그리고 트라우마 서사는 이와 같은 회상의 경험을 모방하거나 재현한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방과 재현은 과거의 일들을 완전히 복원할 수 없으며, 트라우마가 주체에게 주는 고통과 정신적 시련을 그대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해 트라우마 서사는 기존의 창작 방식에 변화를 주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역사적 상황 속에서 트라우마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당시 의도치 않았던 트라우마를 경험하도록 하고 진실과 허구, 사망과 죽음, 역사와 현재라는 장벽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 폴 윤의 『눈 사냥꾼들』은 ‘회고록’이라는 회상의 방식으로 스토리를 전개한다. 회고록은 개방된 형식으로, 전반적인 스토리의 구조를 구성한 후, 새로운 챕터와 이야기들을 삽입하여 이야기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 재미와 전쟁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더할 수 있었다.

폴 윤은 소설 『눈 사냥꾼들』을 위해 요한이라는 한국 전쟁 포로를 스토리의 화자로 삼았다. 요한의 첫 번째 트라우마는 포로 수용소에서 시신을 처리하는 데에서 비롯했다. 요한은 전쟁 중에서 미군의 전쟁 포로가 되었고 2년 동안 감금되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잔혹한 굶주림과 뜨거운 햇살, 죽은 동료들의 시체 처리, 심지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인간적인 괴롭힘까지 경험했다. “이들은 전쟁 포로가 된 후, 밖에 있는 시체를 직접 등에 메고 옮겼다. 그리고 시체를 옮기는 동안 가위 소리와 항아리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 썰 새 없이 날아다니는 파리들로 가득했다. 어떤 포로들은 총상에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줄을 서고 있었고 트럭 뒤에 누워 있는 포로들의 입에 빗물이 가득 차 있었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아무 말도 없이 시체를 옮기는 작업을 했으며, 몇 차례 휴식이 있었을 뿐이었다. 요한은 매일 토하며 작업의 피로와 생리적 반응은 요한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7) Yoon, Paul, *Snow Hunters*, New York: Simon & Schuster, 2013, 21면.

“브라질로 떠나는 배에서 한 선원이 어두운 밤에 술병에 불을 붙여 환하게 비추자,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몸이 반응했고 선원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어둠을 뚫고 지나갔다.”⁸⁾ 요한의 몸은 건잡을 수 없이 빠르게 떨어졌고 홀로 물 위에 고립된 듯이, 마치 배 위에 메달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브라질에 도착한 후 요한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전쟁으로 인한 그의 트라우마는 반복적으로 꿈에 나타났고 현실 속에서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일들과 사람들과의 교제를 회피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무감각과 무관심은 요한의 내면, 그리고 현실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무력감을 암시한다. “생존자는 이야기를 재구성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진실 앞에서 너무나 힘든 나머지 흔들릴 때가 있다. 현실을 부정하게 되면 미칠 것 같지만,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또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너머에 있는 것만 같다.”⁹⁾ “브라질에서의 어느 날 밤, 요한은 꿈을 꾸다가 일본계 재단사가 흔들어 깨웠는데, 사실 꿈속에서 자신이 계속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을 몰랐다. 마음을 진정시키자, 두 눈은 닳을 잃었고 옷이 땀에 모두 젖어 있었다. 재단사는 두 팔로 그를 안고 일으켜 주었고 목욕물을 준비해 욕조 옆에 앉아 따뜻한 물로 요한의 등을 닦아 주었다. 요한은 물속에 앉아 두 무릎을 끼안은 채 재단사의 손을 꼭 잡았다.”¹⁰⁾ 전쟁의 트라우마는 요한의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을 남겨주었고 성격과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지난 고통스러웠던 경험은 단편적인 기억으로 머릿속에 저장되었고 전장에서 돌아온 요한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전쟁이 요한에게 남긴 트라우마는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고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이는 모두 전쟁이 요한에게 준 보이지 않는 상처였

8) Yoon, Paul, 같은 책, 4면.

9) 주디스 허먼, 최현정 역, 같은 책, 301면.

10) Yoon, Paul, 같은 책, 109면.

다.

요한의 심리적 트라우마는 그의 도피 의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트라우마의 피해자는 무의식적으로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자극물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거나 일반적인 일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무감각해진다. 죽은 시체들로 쌓인 더미에서 기어 나온 요한에게 포로수용소는 커다란 트라우마로 작용했다. 미국 사람들은 전쟁 포로를 ‘북한놈’이라고 불렀는데, 전쟁 포로가 된 지 처음 몇 주 동안은 상처가 심했던 전쟁 포로들이 많아서 직접 많은 무덤을 파야 했고 요한도 매일 같이 끊임없이 무덤을 파다. 이로 인해 요한에게 무덤은 피할 수 없는 악몽이 되었다. 요한이 페이스(Peixe)에게 옷을 주러 갔을 때 요한은 페이스의 초대를 여러 번 거절했다. 그 이유는 페이스의 정원에는 많은 이국 사람들의 무덤, 바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의 전쟁 포로들의 무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떠올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무덤과 관련된 것들을 회피했다. 그 과정에서 요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자신만의 작은 공간이었다. 페이스의 초대를 여러 번 거절한 일은 요한이 주변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피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실질적으로 요한에게 동반자가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폐품을 수집하면서 폐품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등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요한은 큰 변화를 겪었고 트라우마를 입은 후 세상을 걷도는 괴상한 사람이 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신체적 부상 외에도 정신적, 또는 행동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증상은 심리적 트라우마의 패러다임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전쟁 트라우마로 인한 도덕적 요구는 심리적 트라우마의 범위에서 벗어나 도덕적 트라우마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도덕적 트라우마는 트라우마의 새로운 패러다임으

로서, 전쟁 속에서 반(反)도덕적인 행동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가리킨다. 도덕적 패러다임은 대부분 전쟁 속 폭행, 살인, 약자를 보호할 수 없었던 상황과 같이 도덕적, 윤리적 의미를 가진 트라우마를 뜻한다. 이는 전쟁과 함께 등장했으며 전쟁의 도덕적 비용(moral cost of any war)을 의미한다.”¹¹⁾ 피해자는 도덕적 신앙과 기대에 위반되는 행동을 목격하거나 직접 행동으로 옮기면서 도덕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일련의 죄책감과 자책감, 가책, 불안감 등을 느낀다.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의 왜곡은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전쟁의 잔혹함과 파멸은 두 진영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사회생활을 마비시킨다.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군인과 간접적으로 전장에 휘말린 민간인들의 몸과 마음, 사상을 자극하며 인간성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요한은 전쟁 속에서 동족상잔의 과정과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람들, 흠에 묻히는 시체들, 서로 목숨을 빼앗은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서 왜곡된 인간성을 보게 되었다. 팽(Peng)은 어린 시절, 요한을 만났고 전쟁 당시에도 다시 요한을 만났다. 그리고 북한 병사였던 요한과 팽은 미군의 전쟁 포로가 되었다. 팽은 전쟁 중에 눈을 다쳤지만 포로 수용소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상처 주변의 피부가 감염되기 시작했고 병세도 악화되었다. “그해 겨울, 팽은 정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며 동작도 굼뎠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건물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대화를 나눌 때도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다.”¹²⁾ 그리고 병세가 더욱 악화되면서 매일 밤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11) Meagher, Robert Emmet, *Killing from the Inside Out: Moral Injury and Just War*, Oregon: Cascade Books, 2014, 4면.

12) Yoon, Paul, 같은 책, 25면.

“어느 날 밤, 몇 명의 사람들이 팽의 어깨를 바닥에 누르고 있었고 요한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팽의 이마를 누르며 팽의 눈을 살피보는 것을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은 팽의 얼굴 앞에 얼굴을 들이대거나 손을 흔들었지만 팽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두려움이 가득 찬 입술로 머리를 흔들며 발버둥칠 뿐이었다. 이들은 팽의 옷을 모두 벗기고 팽이 숨겼던 음식을 찾아 빼앗아 갔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팽이 정말로 눈이 먼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내기를 한 사람도 있었다. 다음날 아침까지 팽은 간수 한 명이 여분의 옷을 줄 때까지 외투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입지 못했다. 그리고 봉대로 팽의 두 발을 묶고 두 눈을 가렸다.”¹³⁾

이와 같이, 삶과 죽음, 전쟁과 그 환경은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왜곡시켰다. 요한은 친구인 팽이 다른 전쟁 포로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동포의 생사를 도와주지 못한 일은 요한의 도덕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 요한은 도덕적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고 정상인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팽이 마지막으로 떠날 때에도 요한은 팽을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광란의 순간 사이에 주변 사람들은 높은 강독을 향해 달려갔지만 요한은 제자리에 선 채 이들을 따라가지 못했고 마치 빛과 같이 순식간에 팽의 두 다리가 물속에 가라앉았다.”¹⁴⁾

이와 같이, 신체적, 또는 감정적 무감각과 무력감은 효과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게 만들었고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더욱 악화시켰다. 폴 윌슨은 의도적으로 기억 측면에서 요한이 받은 트라우마를 묘사했다. 전쟁의 삶을 처절히 경험한 요한은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며, 상처투성이가 된 몸은 전쟁 트라우마를 기억하는 장(場)이 된다. 그리고 요한은

13) Yoon, Paul, 같은 책, 25-26면.

14) Yoon, Paul, 같은 책, 68면.

생환한 전쟁 포로로, 트라우마를 입은 전쟁 포로의 집단을 대표한다. 또한, 전쟁 외적으로 발생한 폭력은 참전 군인들의 인간성과 생명의 존엄성을 외면했다. 이와 같은 전쟁을 경험한 요한은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질 못하며 과거의 경험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한 채, 과거와 현재의 틈 속에서 삶을 연장할 뿐이었다. 요한의 트라우마를 묘사함으로써 폴 윌슨은 전쟁의 부정함과 잔혹함,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 감춰진 인간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또한, 폴 윌슨은 의도적으로 마음의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잊혀진 역사에 대한 독자들의 사색을 불러일으켰다.

3. 재구성: 전쟁 트라우마에 관한 초국가적 창작 방식

이민 3세대로서, 타국에서 제2언어로 작품을 완성하고 미국 독자들과 주류 문학계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은 폴 윌슨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폴 윌슨의 고된 경험은 외부인이나 경험자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이드(Said)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문화와 환경, 집 밖에 알지 못하지만 이민자는 두 가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민자는 현지 작가들과는 비교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¹⁵⁾ 두 문화에 모두 걸쳐 있는 이민 작가들은 ‘이중적인 시각’을 통해 문제를 관찰할 수 있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두 지역을 비교할 수 있다. 두 문화에 대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민 작가들은 직접 두 문화를 관찰하고 비판할 수 있다. 이민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타국에서 글을 쓰는 폴 윌슨은 이중적 시각으로 두 문화를 바라본다. 이에 폴 윌슨은 이질적인 문화 의식으로 고국을 되돌아보고 날카로운 텍스트로 고국의 어두운 곳을 파헤치면서 차별하게

15) Said, Edward, *Reflections on Exile and Other Essays*, Cambridge: Harvard UP, 2000, 114면.

글을 써내려 갔다.

제임스 클리포드(James Clifford)는 “여행, 이민, 이주 등 서로 다르고 중첩되는 경험을 강조하면서 영구히 고정된 신분을 거부하고 근원(root)이 방향(route)보다 우선시되는 전통 관념을 비판했다.”¹⁶⁾ ‘이산(離散)’은 실질적으로 국가를 초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초국가적인 시각에 대한 접근 방식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폴 윤은 주로 브라질, 한국이라는 두 공간과 브라질 사람과 한국 사람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소설 속에서 폴 윤은 브라질의 해안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지리적 묘사가 없었다. 하지만 소설 전반에서 해당 브라질의 해안 마을이 등장하며 요한이 지리적 경계를 초월한 지역이자, 요한의 과거 경험과 역사적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지리적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했다.

사이드에 따르면, “망명은 한 사람과 고향, 그리고 자아와 진정한 집 사이에 위치하여 봉합이 불가능한 균열로, 그 본질적인 슬픔은 영원히 극복할 수 없다.”¹⁷⁾ “남한에서 이념적인 것은 제외하고라도 일가친척 하나 없는 외톨이로 어떻게 살아갈 지 막막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 더욱이 고향과 가까운 남한에서 평생 북한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살기에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과 북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려면, 남한을 택할 포로들이지만, 미지의 가능성이 있는 제3국은 새로운 돌파구였다.”¹⁸⁾ “일부 전쟁 포로들은 고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그러나 요한은 포로 수용소에서 유일하게 북한으로의 송환을 거절하고 브라질의 해안 마을을 선택했다.”¹⁹⁾ 해안 마을이 요한이 국가를 초월한 이민을 완성하는 이상적인 집이자, 지리적인 공간이 된 원인을 살펴보면, 해안 마을이 바로 요한이 정체성과 귀속감을

16) Clifford, James, *Routes: Travel and Transl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97, 3면.

17) Said, Edward, 같은 책, 117면.

18)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The Korean war and POWs』, 선인, 2010, 410면.

19) Yoon, Paul, 같은 책, 10면.

연게 되는 도시 마을이자, 초국가적인 다문화의 언어적 환경에서 기억의 연장과 보존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요한은 북한의 망명자 신분으로, 초국가적인 이민자의 관점에서 브라질의 해안 마을을 보다 깊숙이 살펴볼 수 있었다. 브라질 변방에 위치한 해안 마을이 보여주는 풍요로움과 안락함은 주류 사회와 인종주의의 규범과 가치관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과 무한한 포용성을 보여준다. 그중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의 연합국인 브라질은 미국과 함께 1908년부터 이주한 일본 이민자들을 잠재적인 스파이로 분류했다. 하지만 브라질인의 해안 마을은 일본 이민자들의 거주지이자, 이상적인 초국가적 이주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폴 윌은 전쟁 포로의 이산과 역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억을 통해 전쟁을 회고하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동시에 이민자들이 도시의 공간을 재구성하고 초국가적인 정체성을 구축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전달했다. 폴 윌은 『눈 사냥꾼들』을 통해 북한의 전쟁 포로가 초국가적인 경험에 따른 삶의 고통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자아 정체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인물의 사고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북한 전쟁 포로들의 초국가적인 기억을 재현했다.

제임스 클리포드는 이민, 또는 망명자에 관한 ‘여행 문화’의 구상 과정에서 ‘초국가’라는 용어를 활용해 자신의 모국과 소재 국가가 신체적, 정서적, 정치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유형의 이민을 묘사했다. 또한, 정착 속 여행(travel in dwelling)이라는 용어로 국경을 초월한 인구의 이동 현상을 설명했다. 브라질로 망명한 해외 이민자로서, 시대의 정치적 담론에 익숙한 요한은 국경을 초월한 이동 속에서 자아정체성을 다시금 발견하고 이를 인식하는 경험을 겪는다. 그리고 안정감과 변화라는 이중적인 열망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시카고 로욜라(Loyola) 대학 교수 제이 폴(Jay Paul)은 “정체성 구축 과정에서 지역, 민족, 성별 인종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서 초국가란 국가의 경계라는 제약에서 차이를 해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²⁰⁾ 폴 윌의 관점에서 진정한 글로벌화

된 생활은 근원과 지역을 추적하는 것보다 방향과 여행을 강조한다. 전쟁 포로를 대표하는 요한이 브라질을 고향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이, 요한이 바라보는 초국가적인 이민의 개념은 폴 윤의 초국가적 경험을 재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지리적 고향에 대한 폴 윤의 정신적 인식차이기도 하다. 요한을 수용하는 대상을 브라질 일본계로 설정한 것은 폴 윤의 의도적인 설정으로 볼 수 있다.

브라질에는 기요시라는 일본인 재봉사가 있다. 요한은 기요시를 따라 견습생으로 들어갔고 기요시는 요한을 받아들이며 둘은 함께 작업을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요시가 요한의 생일을 물었을 때, 요한은 전쟁 트라우마로 인해 자신의 생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이에 기요시는 요한이 처음 마을에 도착한 날을 요한의 생일로 삼았다. 요한의 생일날, 기요시는 요한의 문 앞에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이 만든 옷을 걸어 두었다. 두 사람은 매일 재단 일을 했고 평범해 보이지만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식민지 역사 속에서 구축한 양국 간 대립 관계를 초월하며 전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관계를 형성했다. “이주는 단순히 사람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까지 이동 및 정착한다는 점에서, 이주의 증가란 곧 다문화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현 시대가 글로벌 이주의 시대란 점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극히 자연스런 현상일 것이다.”²¹⁾ 이에 따라 요한의 초국가적 정체성 구축은 편협한 민족주의를 초월하여 민족과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이민자의 미국 제국주의 다문화에 관한 브라질 한인계와 브라질 일본계의 평등한 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브라질 한인계와 일본계 이민자 사이의 긴장감을 완화하면서 이민자들의 브라질에 대한 소속감을 제고했다.

20) Fluck, Winfried, “Global Matters: The Transnational Turn in Literary Studies”, *Special issue*, 2012(2), 531-534면.

21) 이용균, 『글로벌 이주: 이동, 관계, 주변』,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7, 173면.

홀(Hall)은 “하나의 경험과 하나의 정체성으로 다른 측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²²⁾ 이와 같은 단절과 불연속성은 이민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구성한다. 내부적 차이를 수용하는 것은 문화의 개념, 특히 이산 문화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오해와 장벽을 해소할 수 있으며, 진정한 대화를 실현할 수 있다. “무조건적 환대는 소속이나 신분을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으로 낯선 방문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의 공간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²³⁾ 앞에서 언급한 브라질의 해안 마을은 기요시와 같은 일본 전쟁 포로를 비롯하여 요한과 같은 북한 전쟁 포로, 그리고 집을 잃고 돌아갈 곳이 없는 비아(Bia)와 산티(Santi)를 받아들였다. 일본, 한국, 브라질에 걸친 이민의 흐름은 다문화 교류와 상호작용을 촉진했다. 이는 다문화 서사를 추구하는 폴 윤의 창작 이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타향에서 자아정체성의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와 소재국, 민족과 다민족, 집과 이민 공간 사이의 틈을 봉합하는 협상으로도 볼 수 있다.

『눈 사냥꾼들』의 공간과 인물은 모두 ‘초국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폴 윤은 북한 전쟁 포로가 겪는 불행한 과정 속에서 내적 몸 부림과 동시에 자아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르페브르(Lefebvre)에 따르면, “공간은 사물과 공존, 공시성(共時性),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포함한다.”²⁴⁾ 한국 공간은 인물의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는 공간, 브라질은 마지막의 귀속 공간으로, 이는 한국과 브라질을 초월한 초국가적인 폴 윤의 관점을 반영한다. 폴 윤은 미국계 한인 작가로서, 서양의 언어와 요한을 통해 역사적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지리적 공간과 초

22) Hall, Stuart,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Identity: Community, Culture, Difference*, Ed. J. Rutherford, London: Lawrence & Wishart, 1990, 222-237면.

23) 최병두, 『초국적 이주와 환대의 지리학: 이방인의 환대와 정착을 위한 공간의 변증법적 전환』, 푸른길, 2018, 412면.

24) Lefebvre, Henri, *The Production of Space*, Trans. Donald Nicholson-Smith, Oxford: Blackwell, 1991, 73면.

국가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공간, 차이를 수용하는 다문화적 공간 등 3가지 측면에서 이민자들의 정체성과 경험을 고찰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쟁 포로가 적대적인 문화의 변방에서 점차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도시의 인종적 공간 구축에 참여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민자들은 이민으로 국적의 변화와 문화적 괴리, 이민의 불안감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폴 윤은 역사적 기억, 초국가적 정체성, 다문화 등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탐색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한 묘사를 통해 한국계 집단의 초국가적 인구 이동과 다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초국가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본 역사, 정체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등 한국계 이민에 대한 폴 윤의 관점을 구현했다.

4. 치유: 전쟁 트라우마와 화해

“인간은 트라우마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삶은 트라우마의 영향으로 심각하게 훼손당할 수 있다.”²⁵⁾ 주디스 허만에 따르면, “회복은 세 단계를 거쳐 완결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생존자는 안전을 확립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억하고 애도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일상과 다시 연결되어 간다.”²⁶⁾ 폴 윤은 전쟁의 분위기를 어둡게만 조성하지 않고 선량한 여성을 등장시켜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했고 독자들에게 온정을 전달했다. 그리고 오늘날 심리학이 발전함에 따라 서사는 트라우마 치료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서사는 문학적 방식으로 트라우마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외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트라우마의 외적 표현

25) Peter A. Levine, 서주희 역, 『(몸과 마음을 잇는) 트라우마 치유』, 학지사, 2014, 52면.

26) 주디스 허먼, 최현정 역, 같은 책, 260면.

은 이들을 억압하는 ‘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폴 윤이 표현한 트라우마의 방식은 전쟁을 경험한 이들과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 역사적 증거이자, 트라우마의 화해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겪은 후,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낀다. 이에 다른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사와 스토리를 구성해 이야기를 전해준다. 소설 속 요한은 현실과 기억 사이를 오가며 자신이 걸어온 모든 생활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과거 발생한 모든 일들은 요한의 마음에 깊숙이 낙인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 요한의 기억을 통해 그가 겪은 트라우마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며, 이와 같은 서사는 요한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을 구성한다. 기억을 회상하는 방식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이다. 그리고 서사는 치료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 피해자는 트라우마와 서사를 통합한 경험을 통해 트라우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도미니크(Dominic)에 따르면, “트라우마의 창작 방식은 일종의 기표(signifier) 활동으로서, 트라우마의 경험을 되살려 트라우마의 메커니즘을 탐색해 과거를 분석하고 트라우마의 경험, 제한된 사건을 상징적인 방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다.”²⁷⁾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트라우마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트라우마의 진실을 직면하는 것이다. 트라우마 피해자들은 진술과 이해, 회복이라는 치료 과정을 따라야 한다. 그중에서 서사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트라우마의 기억은 주로 플래시백(flashback), 악몽, 반복된 행동 등으로 무의식적으로 과거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이에 반해, 서사적 기억은 과거에 발생한 일들을 명확하게 인식해 의식적으로 진술을 진행하며 피해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말한다. 그리고 발

27) LACAPRAD D, *Writing history, writing Trauma*,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1, 186면.

생했던 모든 일들을 되돌아봄으로써 단절된 과거와 다시금 관계를 재구성하며 트라우마와 관련된 사건을 외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트라우마의 기억을 서사적 기억으로 전환한다. 이와 같은 과정의 핵심은 트라우마의 경험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 피해자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트라우마의 경험을 억누르거나 극복 및 초월해 새로운 자아를 구축함으로써 트라우마를 수용하는 데 있다.

요한은 기억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리고 포로 수용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트라우마와 마주한다. 이와 같이 과거의 일을 다시금 직접적으로 대면함으로써 요한은 그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 그 사실과 화해할 수 있었다. 역사를 부정하거나 단순화하지 않는 기억을 회상하는 방식만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주체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트라우마에 대한 서사는 요한이 당시 겪었던 트라우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이처럼 서사는 트라우마 피해자가 과거를 회상하고 다시금 미래를 향하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트라우마에는 원인, 경과, 결과가 있다. 트라우마 서사는 트라우마의 재현을 의미하며, 트라우마의 재현은 트라우마 피해자가 트라우마로 이어지는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서사적 프레임은 기억을 보다 쉽게 관리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 아닌 경우, 독자들은 독서를 통해 피해자들이 경험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또한, 타인의 트라우마와 경험을 인식한 후, 자신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을 느끼며 트라우마의 비극을 초래한 적대 세력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다.

요한은 기억을 회상하며 트라우마를 진술하는 방법과 물건을 수집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한다. 『눈 사냥꾼들』에는 다음과 같은 묘사가 있다.

“그는 어느 오후 골목에서 발견한 상자에 돈을 넣었다. 상자 뚜껑에는 앞치마를 두른 여성이 불판을 들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엄마’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머리에는 파란색 리본이 감겨 있었고 그림 위에는 영어들이 적혀있었다. 그리고 상자에는 아직도 과자 냄새가 남아있었다. 요한은 침실에 있을 때 종종 책상을 지나 상자에 남아있는 설탕과 기름의 향을 맡았다. 요한은 골목에서 컵, 접이식 칼, 술, 상자 안에 든 새 손수건과 같이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했다. 요한은 종종 좁은 골목길에 발길을 멈춘다. 이는 어린 시절에 남겨진 나쁜 습관으로, 당시 요한은 온 마을을 뒤지면서 온갖 물건을 찾아내 지나가던 행상과 새신발끈, 공, 칼로 바꾸었다.”²⁸⁾

“트라우마를 해결하면 잃어버렸던 우리의 일부분을 되찾게 되고, 그 부분들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완전하게 느끼도록 해 줄 것이다.”²⁹⁾ 요한은 브라질의 해안 마을 생활에 적응하면서 요한의 작은 침실은 요한이 수집한 물건들로 가득 찼다. 이러한 모습으로 보았을 때 요한은 작은 물건들을 하나씩 수집하면서 스스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수집한 물건들은 요한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면서 심리적 그늘에서 점차 벗어나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다. 요한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인식하고 안정된 삶 속에서 트라우마의 감정을 덜어내면서 자신의 존재를 반성하며 자신의 영혼을 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국계 한인 소설에 나타난 전쟁 트라우마의 표현 방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은 전쟁을 주도하는 쪽이자, 전쟁의 결과를 알리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이와 달리, 여성은 소설 전반에서 주인공 또는 조력자로 등장한다. 전쟁은 의연함, 용맹함, 강직함과 같이 남성적인 분위기를 보여

28) Yoon, Paul, 같은 책, 16-17면.

29) Peter A. Levine, 서주희 역, 같은 책, 121면.

주는 무대이지만, 결국에는 남성을 비롯해 여성까지,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전쟁의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움, 공포심, 무력감을 느낀다. 그 속에서 여성이 가진 온화함, 친절함, 공손함, 친근함이라는 성격과 심리적 특성은 감성과 동정심을 더한다. 이로 인해 타인의 경계심을 낮추고 친절함을 나누면서 외부 세계와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전쟁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외부 세계로부터 경계심과 불신을 갖으며 점차 외로움과 불안감, 무력감을 느낀다. 섬세하고 온화한 감성을 지닌 여성은 남성의 욕망과 공격성을 절감하고 전쟁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을 위로해준다.

폴 윌은 전쟁의 모습을 무겁고 공포스럽게 표현했지만 때로는 온화한 모습의 여성을 등장시켜 작품에 따스함을 더했다. 포로 수용소의 미국 여간호사, 요한과 같은 이방인 비아, 함께 건너온 여인 안나와 같이 여성들은 요한이 전쟁 트라우마에 직면하고 전쟁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이와 같은 여성을 통해 무거운 전쟁 문학 작품에 한 줄기 온정을 더했다. 여성의 관심과 위로는 전쟁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모두 치유하지는 못하지만 이들이 과거의 트라우마에 용감하게 직면하고 나쁜 기억을 천천히 녹여내면서 이들의 정상적인 삶이 다시금 파괴되지 않도록 도와준다.

요한은 브라질로 떠나기 전까지 미국 여간호사로부터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낀다. “당시 요한은 자신의 몸에 비해 조금 큰 회색의 넓은 양복을 입고 좁은 챙 모자를 쓰고 있었다. 원래 요한의 옷이 아니고 포로 수용소에서 누군가 준 것이었다. 그후, 미국 여간호사는 이미 낡고 헤진 그의 군복을 꺼내 조심스럽게 개어 놓았다.”³⁰⁾ 이와 같은 미국 여간호사의 행동은 요한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여간호사의 어깨가 얇고 목은 햇빛에 조금 탔다는 것을 기억했다. 여간호사는 몇 년이고 요한에게 잘해주었다. 예를

30) Yoon, Paul, 같은 책, 1면.

들어, 여간호사는 요한의 머리를 자르며 이가 나는지 살펴보고, 미국에서 온 희귀한 물건인 초콜릿을 나눠주었다. 크리스마스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요한과 함께 음악을 들으며 눈 속에서 춤을 추었다. 감옥에 갇혔던 요한이 비인간적인 고통을 견디며 알 수 없는 미래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젊고 착한 미국 여간호사의 등장은 의기소침한 포로 수용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따뜻한 관심으로 전쟁 포로인 요한의 모든 공포와 불안감이 배출되면서 잠시나마 그가 겪었던 정신적 트라우마를 잊을 수 있었다. 요한이 오랜 기간 포로 수용소의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전우들과 같이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미국 여간호사가 그에게 준 온정과 위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요한의 잔혹한 감옥 생활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이자, 요한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줬다. 미국 여간호사의 관심과 선의는 요한의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로 송환된 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요한은 브라질에 도착한 후, 자신과 같은 이방인인 비아와 산티를 돌봐주었다.

여성의 위로는 전쟁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일부 해소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치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요한은 미국 여간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전쟁 트라우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브라질로 건너갔어도 정신적 트라우마는 여전히 남아 있어 정상적인 현실의 삶을 누릴 수 없었다. 그래도 요한은 브라질에서 또 다른 여성 비아를 만나게 된다. 요한은 브라질에 도착했을 때 비아를 처음 만나게 된다. 처음 만난 날은 비가 왔는데 비아는 요한에게 파란색 우산을 주었다. 비아의 우산은 처음 이국 땅에 온 요한에게 따뜻함을 주었고 요한은 파란색 우산을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파란색 우산은 요한과 비아를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몇 년이 지난 후, 비아는 요한에게 파란색 우산을 주었을 때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었고 요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로 처음 만난 훈훈한 장면을 회상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아름다운 기억은 요한이 포로

수용소에 있었을 때 경험한 트라우마를 위로했다. “때로 요한은 골목길에서 두 아이를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 처음 두 아이는 어둠 속으로 숨거나 수줍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곧 친해졌고 요한은 비아, 산티와 함께 쓰레기통과 버려진 가방을 뒤지면서 빗, 액자, 구두를 하나씩 찾아 아이들에게 주었다. 아이들에게는 조금 큰 구두였지만 깔끔하고 세련됐다.”³¹⁾ 비아는 점차 요한의 삶 속에 가까워졌다. 비아와 산티는 갑자기 한번 왔다가 또다시 갑자기 떠나곤 했다. 그러다가 다시 몇 주가 지나면 마을에 등장하면서 마치 마을에 계속 있었던 느낌을 주기도 했다. 몇 주 후 비아가 다시 브라질의 해안 마을에 등장했을 때, “요한은 ‘내가 어떻게 이 지붕에 올라온 거지, 이 마을에, 이 나라에 왔는데 비아가 또 내 삶에 들어오는 건가’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요한은 비아가 이전에도 온 적이 있는지, 다른 곳을 잘못 간 적은 없는지,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왜 떠났는지, 여기에 다시 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등을 궁금해했다.”³²⁾ 이때 기요시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자리는 비아가 차지했다.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은 비아가 다시 떠날 것을 걱정했다. “요한은 비아에게 가지 말라고 했고 비아는 요한에게 다녔다. 그리고 어둠이 내리고 온 마을에는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³³⁾ 이는 요한이 트라우마를 인지하고 평온한 삶 속에서 트라우마의 감정을 벗어던지면서 자신의 존재를 반성하고 영혼을 구원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요한은 비아를 통해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힌 트라우마를 치유해 어둠에서 벗어나 비아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폴 윌은 ‘요한이 집도 없고 브라질이 항구 도시의 일부로 존재하지도 않는 비아와 산티에게 끌리게 되는 이유’는 일종의 연대감, 이방인으로서 그들 세 명간의 연대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요시(Kiyoshi)가 요한을 받아들이고 비아와 산티를 돌본 이유

31) Yoon, Paul, 같은 책, 33면.

32) Yoon, Paul, 같은 책, 112면.

33) Yoon, Paul, 같은 책, 118면.

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³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눈 사냥꾼들』 속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선량하고 순수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여성의 진실된 모습으로 세계 곳곳에 있는 ‘악’과 대면하며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여준다. 이는 폴 윌이 소설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다.

5. 결론

주류 담론 속에서 전쟁은 ‘정의’와 ‘불의(不義)’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승리를 거둔 쪽은 전쟁을 합법화하는 방법을 찾고, 패배한 쪽은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그 사이 전쟁 트라우마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진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침묵은 잊혀지는 것을 더욱 빠르게 촉진한다. 그러나 역사와 트라우마는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트라우마는 오늘날 현대의 과제로, 사회나 집단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경험할 경우에는 개인의 트라우마는 쉽게 은폐되고 결국에는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지게 된다. 전쟁의 참혹함은 모든 세대가 잊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전쟁 트라우마의 피해자와 증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전쟁이 이들에게 준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는 아직까지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과거 트라우마의 기억은 영원히 잊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쟁 트라우마 서사에 관한 글쓰기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는 은폐할 수 없으며 트라우마도 지울 수가 없다. 미국계 한인 작가는 전쟁 트라우마를 집필하는데 고유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국땅에서 살아온 이들은 다양한 트라우마를 경험하면서 이들의 작품에 깊이를 더했다. 또한, 영웅주의나 전쟁의 복수라는 전통 관

34) 육성희, 같은 글, 16면.

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동서양의 문화 비교를 바탕으로 한인 집단의 트라우마를 보여주면서 전쟁에 대한 깊은 혐오와 확고한 반전(反戰) 이념을 표현했다. 미국계 한인 작가 폴 윤은 전쟁 트라우마를 직시하면서 문학적 방식으로 한국 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 속 전쟁 포로의 역경을 보여주었다. 요한의 트라우마 과정은 현대 전쟁의 잔혹함을 그대로 나타냈고 피해자는 침략을 당해 약자의 쪽에 서 있었다. 이들의 불행한 경험은 사회 전반에 걸친 트라우마 서사로 녹아들었다. “역사는 트라우마와 같이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서로의 트라우마 속에서 결합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³⁵⁾ 트라우마 비평의 특징은 내포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트라우마 경험을 발굴하고 잊혀지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을 다시금 해석하여 피해자의 정신 깊숙한 곳에 직접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 또는 집단 트라우마에 대한 해석과 반성을 통해 인류의 발전 속에서 누적된 트라우마를 직면할 수 있고 역사를 추궁하고 현실을 사고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의 진실과 거짓에 대한 후대의 복원 측면에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지 여부를 살펴보면, 절대적 진실의 기준은 가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비현실적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전쟁을 사례로 보면, 당시 사망자 수와 이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가해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트라우마를 입은 모든 사람의 외침에 대답할 수도 없다. 심지어, 미국 선교자들의 카메라와 군의 기밀 문서를 찾아야만 당시 발생했던 일들을 파악할 수 있던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절대적 진실을 탐색하며 작은 증거를 논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에 큰 떨림을 줄 수 있다. 어떠한 전쟁에도 절대적인 승자는 없으며, 가족, 사랑, 우정과 같은 아름다운 감정은 모두 파괴되고 인간성은 타락하거나 왜곡되기

35) Caruth Cathy, 같은 책, 24면.

도 한다. 용서와 원한 사이에서 후대인들은 전쟁의 피해자들을 위해 선택할 권리가 없으며,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보고, 기억하고 반성하는 일 뿐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Yoon, Paul, *Snow Hunters*, New York: Simon & Schuster, 2013.

2. 단행본

Peter A. Levine, 주희 역, 『(몸과 마음을 잇는) 트라우마 치유』, 학지사, 2014.

이용균, 『글로벌 이주: 이동, 관계, 주변』,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7.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 The Korean war and POWs』. 선인, 2010.

주디스 허먼, 최현정 역,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열린책들, 2012.

최병두, 『초국적 이주와 환대의 지리학: 이방인의 환대와 정착을 위한 공간의 변증법적 전환』, 푸른길, 2018.

Caruth Cathy,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Baltimore: Jone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Clifford, James, *Routes: Travel and Transl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97.

LACAPRAD D, *Writing history, writing Trauma*,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1.

Lefebvre, Henri, *The Production of Space*. Trans, Donald Nicholson-Smith, Oxford: Blackwell, 1991.

Meagher, Robert Emmet, *Killing from the Inside Out: Moral Injury and Just War*, Oregon: Cascade Books, 2014.

Said, Edward, *Reflections on Exile and Other Essays*, Cambridge: Harvard UP, 2000.

3. 논문

구은숙, 「한국전쟁 포로의 브라질 이주와 환대의 윤리학: 폴 윤의 『눈 사냥꾼들』, 『영어영문학』 22(1), 미래영어영문학회, 2017, 41-59면.

유인, 「민족을 초월한 트라우마 치유의 길: 소설 『스노우 헌터스』(Snow Hunters)중 한국전쟁의 트라우마 및 해소」, 『통일인문학』 90,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5-42면.

육성희, 「초국가주의와 한국계 미국소설」, 『횡단인문학』 2,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1-20면.

Fluck, Winfried, *Global Matters: The Transnational Turn in Literary Studies*, *Special*

issue, 2012(2), 531-534면.

Hall, Stuart,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Identity: Community, Culture, Difference*,

Ed. J. Rutherford, London: Lawrence & Wishart, 1990, 222-237면.

<Abstract>

Memories, Reconstruction, and Healing – The Trauma Narratives in The *Snow Hunters*

Zhang, Xidong

Traumatic narration is a prominent feature of Paul Yoon's novels, which, on the one hand, reflects various traumas that most modern individuals experience, and, on the other, explores the processes of repairing and healing traumas. In *The Snow Hunters*, Paul Yoon employs a multi-faceted modernist narrative approach to show the multiple traumatic experience and events that Yohan, the protagonist, suffered as a prisoner. Through the narration, it can be seen that Trauma syndrome is present diversely on Yohan. But the presentation is not the author's final goal. In fact, by presenting the syndrome, Paul Yoon aims to encourage the protagonist to confront his past and confront himself. Based on the trauma theory, this article analyzes the traumas experienced and witnessed by the novel's characters, as well as their final fulfillment of trauma healing and psychology reshaping. And it reveals the hypocrisy and absurdity of war, and its distortion and devastation of humanity, which is also the significant value and revelation of Paul Yoon's trauma writing.

Key words: *Snow Hunters*, trauma narrative, transnational writing, reconstruction, healing

투 고 일: 2023년 11월 19일

심 사 일: 2023년 12월 11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11일

수정마감일: 2023년 12월 22일